

방심은 금물... 1차전 관문 뚫어라

앤서니 김, 퍼트에 발목

현대챔피언스 3R 26위... 스트리커 등 3명 공동 선두

조광래호 '왕의 귀환' 첫 걸음

亞컵 내일 새벽 바레인과 대결



'왕의 귀환, 아시아의 자존심'을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 축구대표팀이 51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향한 첫 경기에 나선다.

조광래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1일 오전 1시15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 바레인과 경기를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 40위인 한국은 93위인 바레인과 상대 전적에서 9승4무2패로 앞서 있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 수 위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1무1패로 밀리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첫 경기 한국 베스트 11=현지 프로팀과 평가전을 통해 베스트 11 윤곽을 잡은 조 감독은 바레인과 첫 경기에 4-2-3-1 포메이션을 구사할 전망이다.

원톱에는 지동원(전남)이 서고 좌우 날개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불란)이 포진한다. 처진 스트라이커로는 구자철(제주)이 기용되고 중앙 미드필더로는 기성용(셀틱), 이용래(수원)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는 이영표(알힐랄)가 왼쪽에 서고 중앙에는 이정수(알사드)와 광대휘(교토상가), 오른쪽에는 차두리(셀틱)가 포진하며 골문은 정성룡(성남)이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윙백수(인천, 손흥민(함부르크SV) 등이 후반 조커로 투입될 수 있다.

◇구자철 시프트 통할까=가장 관심이 쏠리는 포지션은 역시 '공격 2선'으로 볼 수 있는 구자철, 박지성, 이청용 라인이다. 조 감독은 시리아와 평가전에서 박지성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박지성 시프트'를 가동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박지성을 원래 포지션인 왼쪽 측면으로 기용하며 구자철에게 중책을 맡겼다.

조 감독의 뜻대로 된다면 박지성은 원래 포지션에서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구자철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더해지면서 지동원의 쓰임새도 커질 수 있다.

◇1차전 징크스 깬다=한국은 그동안 아시안컵 본선에 11차례 올랐지만 1차전에서는 2승8무1패로 부진했다. 1988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9회 대회에서 아랍에미리트를 1-0으로 물리친 이후 4차례 대회에서 모두 1차전 무승부에 그쳤다.

바레인만 물리치면 3차전 상대 인도가 이번 대회 최약체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게 된다.

한국축구, 1차전 상대 바레인은 어떤 팀?

바레인은 예선 A조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아시안컵 본선에는 1988년 처음 나왔고 2004·2007년 대회에 이어 네 번째 출전이다. 최고 성적은 2004년 4위다.

2009년 1월 일본과 예선 홈 경기에서 1-0으로 이긴 전력은 있지만 최근 아시아 나라들과 전적이 1승2무4패에 그쳤다. 게다가 주장 모하메드 살렌이 요르단과 평가전 도중 다리를 다쳐 대회 출전이 어려워진 것도 약재다.

투톱을 이루는 압둘라티프는 A매치 30경기에서 16골, 제이시 존은 43경기에서 11골을 넣은 공격력이 돋보인다. /연합뉴스



전술훈련 실전같이

9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경기장에서 진행된 축구대표팀의 전술 훈련에서 이청용과 이영표가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에서 3라운드까지 3명이 공동 선두에 오르면서 시즌 첫 우승컵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스티브 스트리커(미국)는 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골프장 플래티넘 코스(파73,7411야드)에서 계속된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3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1개를 묶어 8언더파 65타를 쳤다.

중간 합계 18언더파 201타를 친 스트리커는 로버트 개리거스, 조너선 버드(이상 미국)와 함께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 공동 4위 그룹으로 처져 있던 스트리커는 11번홀부터 15번홀까지 연속 버디 행진을 벌이는 등 절정의 감각을 뽐냈다. 한 타 차로 뒤지던 18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에서 1m도 안되는 거리에 갖다 붙이면서 버디를 낚아 선두로 올라서며 라운드를 마쳤다. 2라운드 단독 선두였던 개리거스는 이날 1번홀(파4)에서 더블보기, 2번홀(파3)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흔들렸으나, 18번홀(파5)에서 극적인 이글을 잡아내 공동 선두 대열에 합류했다.

버드도 후반에만 버디 5개를 잡아내는 등 6타를 줄이면서 우승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한편 2라운드 공동 16위였던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4번홀(파4)에서 트리플보기를 적어내는 등 퍼트 난조를 보이면서 1타를 잃고 중간합계 5언더파 214타를 써내며 공동 26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노승열 선전 했는데...

로열트로피골프 아시아팀, 유럽팀에 역전패

아시아팀이 유럽팀과 골프대항전인 2011 로열트로피 대회에서 역전패당해 2년 연속 우승컵을 내줬다.

아시아팀은 9일 태국 후아윈의 블랙마운틴 골프장(파72·742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각팀 8명이 펼친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1점을 따내는 데 그쳐 7-9로 패했다.

이로써 아시아팀은 2006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지난해에만 우승하고 나머지 4차례 우승컵을 모두 유럽팀에 내줬다.

포섬에서 2-2로 비기고, 포블에서 4-0으로 승리하며 6-2로 앞선 채 마지막 싱글 매치플레이에 나선 아시아팀은 가장 먼저 경기에서 나산 랑원충(중국)이 페테르 한손(스웨덴)에 6홀을 남기고 7홀차로 패해, 역전패의 발미를 쳤다.

아시아팀은 한국을 대표해서 나선 노승열(타이틀리스트)이 헨릭 스텐손(스웨덴)과 비기는 선전을 펼쳤지만 김경태(신한금융그룹)는 유럽팀의 단장을 겸한 콜리 몽고메리(스코틀랜드)에게 1홀을 남기고 3홀차로 패하고, 일본의 대표주자 이시카와 료도 라이스 데이비스(웨일스)에 2홀을 남기고 4홀차로 물러서면서 실점을 이어갔다. 유럽팀이 7.5-6.5로 역전한 가운데 파블로 마르틴(스페인)이 지브 밀카 싱(인도)을 상대로 비기고 있던 18번홀(파5)에서 기막힌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홀입 바로 앞에 붙이며 버디를 낚아 파에 그린 싱글을 1홀 차로 따돌리고 승리하며 8.5-6.5로 결승점을 뽐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로 남은 통하이 지이(태국)는 요한 에드포르스(스웨덴)와 비기며 0.5점씩 나눠갔고, 아시아는 결국 7-9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정조국, 佛축구 데뷔전... 팀은 역전패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AJ오세르에 입단한 정조국(27)이 프랑스컵을 통해 데뷔전을 치렀지만 소속팀이 아미앵주 팀에 역전패를 당해 아쉬움만 남겼다. 오세르는 9일(한국시간) 새벽 치러진 프랑스 북부 빌르네르 다스크에서 치러진 ES 바스케알(5부리그)과 2010-2011 프랑스컵 64강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했다.

벤치 멤버로 경기를 지켜보던 정조국은 1-0으로 앞선 후반 20분 안소니 르탈락과 교체 출전해 오세르 입단 이후 첫 공식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팀에 합류한 지 5일 만에 출전하면서 아직 동료와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세르는 후반 36분 동점골에 이어 후반 45분 다비드 콜리발리에 게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클래식 침실

ITALY

클래식 거실, 식탁

ITALY

안티크식탁·좌탁·거실·침실

H561 6~12인 식탁
180-230-280x100x76cm
갈아색x베이지 ITALY

소파·카우치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상무점 오픈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공항간 대로변 400평)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062-226-7567

(주) 홍스페이스는 1990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안티,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업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